월요논단

인도(印度)알기 2: 카스트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김 성 은
제주도국제관계대사·전 뭄바이 총영사

오래전 인도인들은 지금의 카스트를 산스크리트어로 피부색깔을 의미하는 바르나(Varna)라고 불렀으며, 각 카스트는 씨족이나 가문을 뜻하는 수많은 자티(Jati)로 구성되었다. 인도 고대 문헌에 4개의 카스트가 보이며, 기원전 302년 갠지스평야를 방문한 그리스인 메가스테네스는 7개 카스트를 언급했고, 남인도 기록에도 카스트가 7개로 되어있다. 이처럼 카스트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었으며, 계급이면서 또한 가업이었던 것이다.

Caste란 말은 15세기말에 포르투갈이 인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순결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어 인도에 진출한 영국이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수많은 직업을 처음에는 3개, 나중에는 4개 계층으로 분류하면서 점차 고착화되어 갔다.

이처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신분제도가 현재 관행으로만 남아있고, 법적으로는 폐지되었는가? 헌법 제15조를 보면 종교, 인종, 카스트, 성 또는 출생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카스트를 부인하거나 폐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에서는 '불가촉'이란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대신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 개념을 도입, 연방 하원, 주의회 등 공직에서 쿼터를 부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카스트를 논할 때,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법무장관이었던 불가촉 천민 B. R. Ambedkar를 빼놓을 수 없다. 인도 독립을 위해서는 마하트마 간디에 적극 협력했으나, 카스트 특히, 불가촉천민 폐지를 두고는 간디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결국, 간디는 카스트 자체를 폐지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불가촉 천민도 신의 아들, 즉 하리잔으로 인정, 카스트내 존재로 받아들였다. Babasaheb(아버지 같은 스승) 암베드카르는 "나는 어쩔 수없이 힌디로 태어났지만, 절대로 힌디로 죽지는 않겠다."고 말하고는 1956년 100여만명 지지자와 함께 불교도로 개종하였다. 그래서 암베드카르가 활동했던 마하라쉬트라주에는 지금도 불교신자들이 상당히 많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카스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정 카스트 남자와 결혼한 상위 신분 여자가 헌법상 보장된 할당 규정에 따라 지정 카스트로 교사시험에 응시, 합격, 25여년간 교사생활을 하다 지정 카스트 신분이 아님이 드러나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태어날 때 신분은 죽을 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지금까지 교사 생활은 인정하면서도 판결 직후 바로 교사직 상실 및 퇴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럼, 향후 카스트제도가 없어질 것인가? 필자는 많은 인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카스트는 이제 계급이자 가업으로 정착되었으며, 힌두교가 존재하는 한, 카스트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1990년대 중반 인도에 진출한 모기업이 카스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지속, 상당한 생산성 저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사설

차고지증명제 해결과제 많아 난항 우려

이달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 차고지증명제는 조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고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차고지가 없는 지역 등 추진 과제가 산적해 난항이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 해결과제가 만만찮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도내 공영주차장은 총 1136곳에 주차면수는 3만9059면입니다. 이 가운데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43곳(5203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 1092곳(3만3856면)은 무료로 개방해 차고지증명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료개방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관제시스템 설치 등에 5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차고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가 제정된 1996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사실상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구도심의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율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제주시 일도1동 7%, 일도2동 15%, 용담1동 18% 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이참에 준비 소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역으로 시행하는데도 자기차고지 예산은 겨우 1억원 증액했습니다. 가뜩이나 공영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올해 예산 3억원 중 상반기 2억원 들여서 조성될 자기차고지는 150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고지 문제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외국인 투자 급락 그냥 놔둘것인가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년 연속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만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을 집계한 결과 제주지역은 7400만달러에 불과합니다. 환화로는 88억원으로 100억원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연간 10억달러를 넘어섰던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은 2015년 13억9000만달러, 2016년 10억100만달러, 2017년 10억89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억7800만달러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35%정도 감소한 규모로 2년 연속 급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규제 강화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프로젝트들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존과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 위주의 투자 유치를 지양해 IT, BT, 전기차, 화장품, 블록체인 등 신산업으로 투자 유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또 중국 위주의 투자 역시 다른 국가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흐름에 맞서 각종 규제로 제주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떨어진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일 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데도 제주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는지 제대로 된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열린마당

소소한 나눔의 행복

양 은 숙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혼, 실직,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위험사유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1인가구 고독사 발생은 우리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봉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행복한 나눔반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봉개동 관내에 소재하는 식당, 마트, 중·소상공인들과 후원협약을 체결하여 식당에서 만드는 반찬이나 물품 등을 후원 받아 돌봄이 필요한 대상 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해 월2회 20가구에 반찬나눔 사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식당에서는 손님에게 제공할 밑반찬인 멸치볶음을, 다른 식당에서는 깍두기를, 어떤 분은 메추리알 장조림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면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그릇에 나누어 담아 대상자들에게 대신 전달하며 이웃 간의 관심과 정을 나누는 것이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행복나눔반찬' 지원사업은 관내 식품업체 1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되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예산투입 없이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으로, 가정에서 김치를 담근 날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접시 보태면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물적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관심이 필요한 대상 가구를 정기적으로 미팅할 수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가정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봉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지사 예능 출연으로 유명세 확인

지난 주말 검색어 깜짝 1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재확인.

원 지사는 지난 7일 새로운 '보스'로 합류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이날 재방송되면서 오전 10시를 전후해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깜짝 스타로 등극.

원지사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과 사법시험 수석 합격 타이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인터뷰 최초 발언자로 유명한 지사 6년차의 리얼한 일상과 일터에서의 '반전 매력'을 공개. 조상윤기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제주보건소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모유수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21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해 눈길.

이번 대회는 대한간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주최로 8월 21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되며, 선발된 아기에게는 푸짐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생후 5~7개월(2018년 12월 22일~2019년 3월 21일 출생아)의 건강한 모유수유아로 19일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고대로기자

강등권 위기 속 응원 타임

○…제주유나이티드 팬들이 'V3 응원 타임'을 준비해 강등권에 처한 팀에 응원의 메시지.

제주 팬들은 지난달 29일 대구전부터 자발적으로 응원석에 모여 승점 3점 획득을 위해 전·후반 33분에 3분 동안 집에서 직접 가지고 온 리코더, 템버린, 응원막대, 페트병 등 각종 도구를 이용한 응원을 펼치는 'V3 응원 타임'을 진행.

제주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유료관중화의 중요한 지표인 연간회원 판매량도 전년 대비 150% 성장했을 만큼 제주 팬들의 성원은 여전하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故 윤춘광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葬 공고

故 윤춘광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葬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운영 - 기 간 : 2019. 7. 14.(일) ~ 7. 16.(화) / 장 소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 **영 결 식 - 일 시 : 2019. 7. 17.(수) 9: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앞**
○ **안 장 식 - 일 시 : 2019. 7. 17.(수) 15:00 / 장 소 : 서귀포 추모공원**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장의위원회》
· **장의위원장** : 김태석 의장
· **고 문** :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 강신정, 구성지, 고충홍, 김용하, 김재호, 문대림, 박희수, 송봉규, 양대성, 양우철, 오충남, 오충진, 장정언, 현승탁(이상 전직의장 가나다순), 친지대표 윤영광
· **위 원** : 김희현 부의장, 강충룡 부의장,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강시백 교육위원장, 강철남, 고현수, 강성민, 양영식, 조훈배, 김장영(상임위 부위원장), 오정훈 사무처장, 친지대표 윤상영
· **간 사** : 김윤자 총무담당관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오정훈 사무처장
· **총무** · **의식부**(김윤자, 오태현) · **경호부**(변덕승) · **연락부**(김애숙)

《유 족》 · **미망인** : 강선이 · **자녀** : 윤민우, 윤민주

故 윤춘광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葬
장의위원장 김 태 석

부 고

김정학(前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어머니 **김해김씨 행유**(향년 90세)께서 2019년 서기 7월 13일 15시 50분경에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15일(월)
▶발인일시: 2019년 7월 16일(화)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 가족묘지

아 들 김정학
딸 김혜정 사 위 김원하
손 자 김민철
손 녀 김수연 손 서 김태현
외손자 김재현 증손자 김예준
김재성 증손녀 김예율

※ 연락처 : 김정학 010-2821-5690
김혜정 010-5697-6443
김수연 010-6611-3692
김민철 010-2821-5692
김원하 010-7618-6443
김태현 010-5400-4735

부 고

홍성우(고홍치과 원장) 아버지 **남양홍공 태상**(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14일 11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15일(월)
▶발인일시: 2019년 7월 16일(화) 오전 5시 5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10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 해안동 선영

부인 송재순
아들 홍성우 며느리 한지현
성완 양문희
성배 고금이
딸 홍연숙 사 위 양명환
경희 김윤범

※ 연락처 : 양명환 010-8101-2575
홍연숙 010-2728-2575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 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